

젊은
아빠

'자녀양육' 우리가 맞는다

‘남편위한 육아책’ 출간 붐

‘아빠를 위한 육아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출산과 육아라면 ‘엄마의 일’로만 여겼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이같은 책들은 자녀기르기를 삶의 큰 보람으로 여기며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요즘 젊은 아빠들을 타깃으로 삼은 것. 우리 가정의 새로운 풍속도를 반영하고 있어 흥미를 모은다.

그 내용도 다양해서 아기가 아직 태어나기 전의 태교에서부터 자녀의 대학입시지도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고, 육아에 대해 무지한 아빠들에게 구체적 사항들을 가르쳐주는 안내서에서부터 아버지 자신이 쓰는 육아일기까지 형식도 여러가지다. 종래의 일반 육아서들도 그 대상을 ‘엄마·아빠’로 넓혀 잡아 아빠의 육아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임동근씨의 <함께 읽는 신혼 태교>(고려원)는 ‘남성의 태교’를

한 장으로 따로 묶어 출생이전부터 시작되는 아빠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아빠의 임신일기>(데니스·단치거 지음, 이봉호 옮김, 동아출판사)는 아기가 아내의 뱃속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비아빠인 남편의 가슴속에서도 자란다는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다.

미국의 인기 칼럼니스트인 볼·그린의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모두 시작되었다>(남궁옥 옮김, 하늘)도 아빠가 쓴 일기. 신혼부부가 늘어

“삶의 보람 아이기르는데 있다” 인식 내용·형식 다양...가정의 새 풍속 반영

난 한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여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첫딸의

1년간을 꼼꼼히 적어나갔다.

우리나라에서도 2년전 카피라이터 맹명관씨가 육아체험을 <짬뽕이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바 있고, 최근엔 정치학자인 이우각씨가 아기의 성장과 사회의 모습을 아울러 기록한 일기를 <아빠가 들려주는 인생이야기>(삶과함께)로 펴냈다.

<아빠와 아이-엄마 혼자서만 키울 수 없어요>(황정규·김성봉 옮김, 샘터)와 <엄마는 내기분 몰라-아빠를 위한 10분 심리육아>(이승희 옮김, 미안)는 피츠츄·닷슨의 육아안내서. 육아지식을 가르쳐주는 한편 아버지가 해줘야 할 일들을 설명해 놓았다.

또 <좋은 아빠-아버지의 자녀교육>(로스.D.파크 지음, 김성봉 옮김, 샘터)은 아기 자체보다 아버지의 입장에 주안점을 둔 책이다. 이밖에 <첫아기를 가진 엄마·아빠에게>(마리·로즈빌스키, 바

바라·바네트지음, 샘터)나 <엄마·아빠 이렇게 키워주세요>(이성진·이기우 엮음, 교육과학사)도 아버지의 역할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아버지가 들려주는 삶이야기>(조병목지음·정일출판사)는 아버지로서의 체험을 살려 쓴 가정교육 지침서. 다른 육아책과는 달리 예절교육에 특히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아마도 아버지들이 가장 나중에 읽어야 할 책은 <일류대 합격을 위한 아버지학-낙방생은 아버지가 만든다>(우가와·노보루지음, 김승용 옮김, 세대)일 것이다. 일본의 명문 입시학원 경영자인 지은이가 학원의 성공비결이었던 아버지 주도형 수험교육을 설명한 책이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어릴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다.

【육홍타 기자】



아이와 육아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요즘 남성을 위한 육아책들이 늘고 있다.